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71

JCCT 2021-8-9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ood death cognition, self 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박효진*, 양현주**, 변은경***

Hyo Jin Park*, Hyun Joo Yang**,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2.87 ± 0.26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t = -2.90, p = .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좋은 죽음 인식($r = .27, p = .001$), 자아존중감($r = .36, p < .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r = -.27, p < .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beta = .26, p < .001$), 자아존중감($\beta = .29, p < .00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beta = -.30, p < .001$), 종교($\beta = .20, p = .004$)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8.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생명의료윤리, 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54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was 2.87 ± 0.26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ith respect to religion ($t = -2.90, p = .004$).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good death recognition ($r = .27, p = .001$), self-esteem ($r = .36, p < .001$),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 = -.27, p < .001$). The factors affecti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study subjects were good death recognition ($\beta = .26, p < .001$), self-esteem ($\beta = .29, p < .00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a = -.30, p < .001$), religion ($\beta = .20, p = .004$),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8.7%.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Good Death, Self-esteem, Life-sustaining Treatment,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3저자)

접수일: 2021년 6월 2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28일

Received: June 2, 2021 / Revised: July 18, 2021

Accepted: July 28, 2021

*Corresponding Author: elijah7878@cs.ac.kr

Dep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삶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에 도전하는 새로운 윤리과제인 ‘생명의료윤리’를 대두시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1].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생명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따른 윤리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기준이 되고,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근거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고하게 정립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2].

그러나 간호사는 생명의료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낙태, 안락사, 치료중단, 뇌사판정 등에 당면하면서 인간다운 품위와 현실적 가치관 사이에서 윤리적 판단 및 윤리적 행위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3].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비평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어, 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5].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유지 목적의 의료제공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미의 의료제공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옹호자 역할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있기에[6]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요구된다[7].

연명치료 중단은 자연적인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각 개인의 인식, 불안, 죽음에 대한 기피, 부정, 수용 태도를 의미한다[8].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갖춘 간호사는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임종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게 되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9]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 부정적인 결과[10]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은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11]. 좋은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기조절능력을 갖추어 죽음의 과정 동안 인간으로서

의 가치나 신념이 존중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함하는 것[12]이라고 하여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좋은 죽음을 인식하고 임상현장에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생명의료의식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관단으로 자기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아존중감[13]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14]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11].

간호사는 가장 일선에서 환자를 돌봄으로 환자의 요구와 의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연명치료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환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연명치료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15][16][17][18][19] 좋은 죽음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간호사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준비가 필요한 간호대학생이면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간호대학생 중 만 18세 이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38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부를 배부하여 17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15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좋은 죽음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측정은 Schwarz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Jeong[21]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개의 하위영역 17문항으로 친밀감 9문항, 통제감 3문항, 임상증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chwarz 등[20]이 개발할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7$, Jeo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Rogenberg[13]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를 Jeon[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genberg[13]가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Jeon[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3)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Park[20]이 개발한 도구를 Byun 등[1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Byun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4) 생명의료 윤리의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Lee[24]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 측정 도구를 Kwon[25]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 윤리의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5문항, 인공 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으로 총 9개의 하위영역에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29명(83.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25.49세로 '22세 이하'가 59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 96명(62.3%),

‘4학년’ 58명(37.7%)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 102명(66.2%), ‘유’ 52명(33.8%)으로 나타났고, 죽음 경험은 ‘유’ 125명(81.2%), ‘무’ 29명(18.8%)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83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좋은 죽음 교육 여부는 ‘무’가 99명(64.3%)으로 많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교육 여부는 ‘유’가 84명(54.5%)으로 많았고, 생명의료윤리 교육 여부는 ‘유’가 102명(66.2%)으로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29	83.8
	Male	25	16.2
Age (year)	≤22	59	38.3
	23-25	49	31.8
	≥26	46	29.9
	M±SD	25.49±6.04	
Grade	3rd	96	62.3
	4th	58	37.7
Religion	No	102	66.2
	Yes	52	33.8
Death Experience (family or friend)	Yes	125	81.2
	No	29	18.8
Understand of death	High	30	19.5
	Somewhat	83	53.9
	A little	38	24.7
	Little	3	1.9
Good death education	Yes	55	35.7
	No	99	64.3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ducation	Yes	84	54.5
	No	70	45.5
Biomedical ethic education	Yes	102	66.2
	No	52	33.8

표 2.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정도
Table 2. Degree of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154)

Variable	M±SD	Min	Max
Good death recognition	3.25±0.41	1.00	4.00
Self-esteem	3.72±0.74	2.00	5.00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77±0.36	1.53	3.74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87±0.26	2.08	3.63

2.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3.25±0.41점, 자아존중감 3.72±0.74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2.77±0.36점, 생명의료윤리 의식 2.87±0.2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t=-2.9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M±SD	t/F(p)scheff's
Gender	Female	2.88±0.25	1.44 (.158)
	Male	2.80±0.25	
Age (year)	≤22	2.87±0.23	.80
	23-25	2.83±0.25	(.453)
	≥26	2.90±0.29	-
Grade	3rd	2.87±0.27	.44 (.662)
	4th	2.85±0.23	
Religion	No	2.82±0.25	-2.90 (.004)
	Yes	2.95±0.25	
Death Experience (family or friend)	Yes	2.87±0.27	.53 (.601)
	No	2.84±0.20	
Understand of death	High	2.90±0.29	1.28 (.283)
	Somewhat	2.89±0.26	
	A little	2.80±0.20	
	Little	2.76±0.34	
Good death education	Yes	2.89±0.23	.71 (.481)
	No	2.86±0.27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ducation	Yes	2.84±0.23	-1.15 (.253)
	No	2.89±0.28	
Biomedical ethic education	Yes	2.84±0.28	-1.448 (.150)
	No	2.91±0.21	

표 4.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N=154)

Characteristics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p)	r(p)	r(p)	r(p)
Good death recognition	1			
Self-esteem	.21(.011)	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15(.067)	-.044(.585)	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7(.001)	.36(<.001)	-.29(<.001)	1

표 5.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N=15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53	.196		12.87	<.001
Good death recognition	.16	.045	.26	3.64	<.001
Self-esteem	.10	.024	.29	4.11	<.00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2	.050	-.30	-4.32	<.001
Religion†	.11	.037	.20	2.95	.004
R = .553 R ² = .305 Adjuste R ² =.287 F=16.38 p<.001					

† Dummy variable: College life satisfaction(High=1, Middle, Low=0)

4.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과의 관계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좋은 죽음 인식(r=.27, p=.001), 자아존중감(r=.36,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r=-.29,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좋은 죽음 인식은 자아존중감(r=.21, p=.01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교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933-.99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06-1.072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77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6.38,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은 .287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28.7%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β =.26, p<.001), 자아존중감(β =.29, p<.00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β =-.30, p<.001), 종교(β =.20, p=.004)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

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2.87 ± 0.26 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에서는 종교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Jeong[11]의 연구에서 3.01점, Kwon[15]의 연구에서 2.9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에서 연령, 종교, 종교생활 참여도, 동아리 소속 종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5], 성별, 연령, 학년, 윤리적 교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8]와도 차이를 나타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이 대상이지만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게 나타나 교육[19]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높이는 중재가 필요하고, 실습현장에서 생명의료윤리가 적용되는 경험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상황에 따라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면,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함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관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1][26]와 유사하고,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1]와 유사하다. 또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7]와 유사하고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6],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11]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종교로 나타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 결과[28],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종교유무, 종교활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17]와 유사하다.

대상자가 좋은 죽음 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내어 간호대학생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죽음 태도에 긍정적이라는 결과[29]가 이를 뒷받침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을 맞을 권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11]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이므로 생명의료윤리 의식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28]에 따라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도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상관관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생명존중의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해 연명치료중단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19]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 제한적이지만 생명존중의지에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30]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간호하는 책임과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죽음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31] 간호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향상을 위해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증진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종교를 확인하였고,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S. Yang, and M.J. Koo, "Bioethic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entering to the case Daegu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0, No. 1, pp. 1-16, 2009.
- [2] S.H. Ahn, "Quantitative analysis of ethics research within the Korean nursing community",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2, No. 3, pp. 261-274, 2009. DOI: <https://doi.org/10.35301/ksme.2009.12.3.261>
- [3] K.Y. Park, "Organ transplantation and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3, No. 1, pp. 13-24, 2000.
- [4] Y.S. Kim,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sciousness on ethics between clinical nurses and student nurse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00.
- [5] M.L. Olsen, K.M. Swetz, and P.S. Mueller, "Ethical decision making with end-of-life care: palliative sedation and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Mayo Clinic Proceedings*, Vol. 85, No. 10, pp. 949-954, 2010. DOI: <https://doi.org/10.4065/mcp.2010.0201>
- [6] G.E. Watkinson, "A study of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critical care nurses in caring for potential and actual organ donors: implications for nurses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2, No. 5, pp. 929-940, 1995. DOI: <http://doi.org/10.1111/j.1365-2648.1995.tb02645.x>
- [7] J.A. Yang,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2, pp. 226-235, 2020. DOI: <https://dx.doi.org/10.22156/C4S4SMB.2020.10.12.226>
- [8] H.C. Kim, "The attitude of death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9] F.J. Shih, M.L. Gau, Y.S. Lin, S.J. Pong, and H.R. Lin, "Death and help expected from nurses when dying", *Nursing Ethics*, Vol. 13, No. 4, pp. 360-375, 2006. DOI: <https://doi.org/10.1191/0969733006ne881oa>
- [10] E.K. Byun, H.R. Choi, A.L. Choi, N.M. Kim, K.H. Hong, and H.S. Kim,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9, No. 1, pp. 112-124, 2003.
- [11] E.J. Choi, and H.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 275-28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12] G.J. Lee, K.H. Hwang, J.R. Ra, J.A. Hong, and C.S. Park,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 & Palliative Care*, Vol. 10, pp. 23-39, 2006.
- [1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14] H.S. Kim, and S.R. Shi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nd their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 mediating effect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9, No. 4, pp. 373-381, 2017. DOI: <https://dx.doi.org/10.7475/kjan.2017.29.4.373>
- [15] Y.H.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262-272, 2009.
- [16] E.A. Kim, H.Y. Park, and S.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7, No. 2, pp. 144-158, 2014. DOI: <https://dx.doi.org/10.35301/ksme.2014.17.2.144>
- [17]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he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18]J.H. Ba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its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1, pp. 271-278, 2018. DOI: <http://doi.org/10.21184/jkeia.2018.1.12.1.271>
- [19]K.A. Kim, and G.S. Jeong,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n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2, pp. 240-249,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2.240>
- [20]C.E. Schwartz, K. Major, J. Rogers, M.A. Yunshen, and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 6, No. 4, pp. 575-584, 2003. DOI: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21]H.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2000.
- [22]B.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No. 1, pp. 107-130, 1974.
- [23]G.S. Park, "The study of consciousness of euthanasia among health professionals: Q-methodological approach,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2000.
- [24]Y.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 20, No. 2, pp. 249-270, 1990. DOI: <https://doi.org/10.4040/jnas.1990.20.2.249>
- [25]S.J. Kwon, "A study on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 [26]K.N. Kim, E.H. Kang, and M.Y. Kim,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3, pp. 429-437,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3.429>
- [27]Y.M. Jang, and E.K. Ahn,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7, No. 2, pp. 53-61, 2019. DOI: <https://doi.org/10.22678/JIC.2019.17.2.053>
- [28]S.Y. Park, and K.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55-144, 2015. DOI: <https://dx.doi.org/10.15207/JKCS.2015.6.6.255>
- [29]Y.H. Park, "Factors affecting life respect and will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243-249, 2019.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19.5.4.243>
- [30]S.N. Kim, and H.J. Kim,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 & Palliative Care*, Vol. 19, No. 2, pp. 136-144, 2016.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36>
- [31]E. Hong, M. Jun, E.S. Park, and E. Ryu, "Death perceptions attitude towards death, and attitude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3, No. 4, pp. 265-272, 2013. DOI: <https://doi.org/10.5388/aon.2013.13.4.265>